

OPEC의 장래

이 자료는 美国 석유산업연구재단 (Petroleum Industry Research Foundation) 이사장인 존 리히트 블라우씨가 최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소재 OPEC연구센터가 주최한 「OPEC의 장래」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리히트블라우씨는 이 글에서 OPEC가 1990년대 중반까지 보다 충분한 석유생산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한 향후 10년간의 OPEC의 장래를 전망하고 있다. 〈編輯者註〉

1. 머리말

만약 과거가 미래에의 프롤로그라고 한다면 지난 수년간의 사건들은 OPEC(石油輸出國機構)에 결코 좋은 징조들은 되지 못한다. OPEC의 산유량은 이미 79년에 절정기를 맞았으며, 석유收入은 80년에, 그리고 공식판매가격은 81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 후로 3개 부문 모두 내리막길을 걸어 왔다.

OPEC의 이러한 현상은 불행하게도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었다. 지난 5년간의 세계경제는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리고 非石油 에너지 소비는 물론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 및 그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OPEC는 70년대에 세계 여타지역에 거의 2배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몰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흐름의 양상은 因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석유정책 입안자들과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OPEC의 운명이 81년 이래로 왜 그토록 급격히 쇠락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OPEC가 이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빈번히 예언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OPEC가 쇠퇴하거나 붕괴되어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계 비공산권 전체의 석유수요는 지난 해 하루 100만배럴 수준 증가한데 뒤이어 금년에 또 다시 소량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의 산유량은 금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는 지난 해 1/4분기부터 금년 1/4분기까지 하루에 약 200만배럴의 산유량 감소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중 非OPEC 산유량이 하루 100만배럴 수준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현재의 油價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석유산업내의 일반적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80년대 전반기에 OPEC석유 수요를 침체시켜온 요인들은 80년대 후반기에도 대체로 그대로 작용할 것이다. OPEC로서 그나마 희망을 거는 것은 앞으로의 석유정세가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OPEC석유수요가 하루 1천 600만-1천 650만배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80년대 후반기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90년까지는 OPEC의 산유량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즉 하루 2천 200만-2천 300만배럴선까지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2. OPEC 생산량의 代替현상

공급측면에서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서 非OPEC의 공급량이 79-84년 사이에 하루 650만배럴 증가했으며, 증가분이 모두 OPEC 생산분에서 대체된 물량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非OPEC産 원유의 공급증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北海 산유량이 금년도에 더욱 증가할 것이며, 캐나다의 생산도 상승추세이며, 몇몇 非OPEC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로 증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을 제외하고는 非OPEC 주요 산유지역중 어느 곳도 전반적 증산을 감쇄시키기 위한 감산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

흥미로운 것은 81년 봄 이래로 OPEC와 세계 복합유가가 명목가격으로 22%, 실질가격으로 35%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非OPEC 산유량의 증가가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油價하락의 대부분이 최근 2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석유 시추사업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油價가 하락했다고 해도 현재의 油價가 탐사·개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석유생산에 대한 稅制의 배려도 뚜렷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세율이 높을수록 유가하락에 따른 부담이 생산자에게 덜 흡수된다는 것이다. 北海산유국들과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세금과 로열티를 징수하는 쪽에서 유가인하에 따른 부담의 큰 부분을 흡수하도록 해 왔다. 특히 英國과 캐나다는 생산자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세제와 로열티 체제를 재편해 왔으며, 이들 두 나라에서 시추활동이 최근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의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美國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또 하나의 생산자 극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OPEC 유가인하가 석유 생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신호이다. 즉 생산자들이 앞으로 유가가 더 인하되거나 현상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한에는 그들은 현재의 생산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점이다. 美國내에서 시추활동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그러한 논리를 반영하

는 것이다. 원유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사야하는 입장이 된 메이저 회사들로서는 OPEC로 부터 시장가격으로 석유를 사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부존 석유를 찾아내어 OPEC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빈틈을 활용하고 또 모든 경제적 빈틈에 앞서가야 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추세에는 자동조정 장치가 있게 마련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추세를 역류시킨다.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 문제는 이러한 역류현상이 80년대말 이전에 시작될 것 같다. 2차대전후 3개의 가장 큰 유전 발견으로 알려져 있는 알래스카 노드슬로프·北海·멕시코등 非OPEC 지역의 3대 유전의 석유생산이 거의 때를 같이해서 활기를 띠므로 해서 70년대 후반이래로 非OPEC 원유에 의한 OPEC의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역류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일이다.

74년만해도 노드슬로프와 北海유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때 멕시코의 하루 64만배럴 생산량도 그전 5년간의 평균 생산량을 상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84년에 이르러서는 이들 3대 유전의 석유생산 합계가 자그만치 하루 820만배럴(NGL포함)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3대유전의 개발만 없었더라도 78년 이후의 OPEC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3. 非OPEC의 성장 정체

그러나 이들 非OPEC 산유국의 석유생산도 정체 상태에 도달했다. 멕시코는 82년에 하루 300만배럴, 같은 해 캐나다의 노드슬로프는 170만배럴로 이미 절정을 기록했으며, 北海는 금년도가 370만배럴로 절정기가 될 것 같다. 英國 북해의 산유량은 지난 2년간에 걸쳐 감소를 계속해 왔으며, 캐나다는 90년까지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단지 멕시코가 앞으로 5-6년 사이에 산유량을 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증산분은 수출이 아닌 내수용으로 모두 흡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非OPEC 자이언트급 유전의 증산에 따른 영향은 전적으로 OPEC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3대 유전지역의 산유량은 수년내로 작게나마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물

론 이집트·브라질·콜롬비아 및 서아프리카 제국 등의 非OPEC 지역에서의 생산량 증가를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70년대와 같은 非OPEC 지역의 생산 증대현상과 비견될만한 것은 예상되지 않는다.

빼놓을 수 없는 주요산유지역인 美國 본토(알래스카·하와이 제외)에서도 생산감소가 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산유량은 70-80년 사이에 하루 940만배럴에서 700만배럴로 26%나 하락했으며, 그 뒤로는 탐사활동의 급격한 증가와 2차 회수설비의 촉진영향으로 현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탐사활동과 회수설비의 촉진이 매장량: 생산량비의 감소를 증지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미래로 부터의 차용」에 의한 현 생산 극대화의 형태에 불과했다. 새로 발견된 캘리포니아 해저유전 생산이 시작되는 87년 이후로 美國 본토의 석유생산은 장기하강세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시추가 단행된 지역으로서는 당연한 상황전개일 것이다. 단지 당연한 감소율이 최근의 회수기술 진전에 의해 완만해질 뿐이다.

소련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산유량이 약간 감소했다. 1/4분기의 생산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금년에도 추가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감산으로 대 서방 석유수출이 영향을 받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소련이 천연가스 수출로 외화 가득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러한 추측은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4. 석유시장 전망

세계석유시장의 공급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OPEC에 가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압박현상은 앞으로 2-3년내로 완화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초기에 가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물론 우리의 油備가정과 석유산업구조를 감안해 볼 때 OPEC 외부지역에서 새로운 석유매장량에 대한 탐사·개발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낙관적인 성공 가정하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앞으로 몇년간은 예상되는 非OPEC 지역의 감산추세를 늦출 수도 있다.

수요측면에서 지난해 세계석유수요가 3% 증가했다는 사실이 예상치 못한 추세의 역류현상을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계석유수요는 79년의 절정기를 지나면서 80-83년 사이에 꼬박꼬박 감소를 거듭해 왔으나, 감소폭이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5년을 내다볼 때 1% 정도의 연 증가율도 예상되고 있다. 환언하면 85-90년 사이에 세계석유 수요가 하루 300만배럴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난 해에 세계 전체 소비의 25%를 차지했던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빠른 속도의 소비증가를 보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선진공업국(OECD 국가들)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79-84년 중에도 OECD의 석유소비가 17%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소비는 6.5%가 증가, 두 그룹간에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예상되고 있는 석유수요 저속성장의 주요인은 가스·석탄 및 원자력에 의한 지속적인 燃料油 대체 현상이다. 연료유의 대체연료 전환추세는 수송부문에서의 석유수요 성장세를 거의 전도시켜 버릴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달러환율이 하락하면 현지통화 유가는 싸지게 될 것이어서 유럽의 석유수요는 달러환율 변동에 어느 정도 양성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석유제품 수요의 단기 가격 신축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러한 영향은 수요하락의 첫 1~2년간은 비교적 적게 나타날리라는 추측이다. 반면 OPEC 국가들은 석유수출에 의한 구매력의 감소를 거의 즉각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美國에서는 연료유소비 감소가 금년도 이후에 완화되어 90년도까지 약 0.5%로 저속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연료유 소비의 침체는 자동차 연료 효율성의 제고로 인한 휘발유 수요의 지속적 감소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日本에서는 90년까지 연간 1%의 석유수요 증가현상을 보일 것이며, 잔사연료유 이외의 대부분의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세계석유수요가 79-83년중 감소를 기록한 것은 거의가 선진국 에너지 시장에서 막대한 타 연료의 석유대체 현상이 이루어진데 기인한다. 이 기간중 하루 400만배럴의 잔사연료유 수요감소가 기록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연료유의 대체가 미국의 경우 일단 금년중 완료될 것이며, 유럽과 극동에서는 4-5년내로 종결될 것이다. 그 이후 석유수요의 신장여부는 수송부문의 연료유수요에 의

해 판가름 될 것이다.

5. 石油수요의 성장 전망

석유생산자들이 수송부문에 성장전망을 거는데에는 두가지 긍정적 시각이 작용한다. 하나는 수송부문이 장기적 성장시장이라는 점이며, 또 하나는 석유가 앞으로 가까운 장래까지는 모든 연료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특별한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다. 석유의 독자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이고도 실질적인 油價의 상승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유가상승만 없다면 90년대의 석유수요는 85-90년 보다는 더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전제조건이 되는 수송의 기계화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印度·韓國·대만·칠레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79-83년중의 차량 등록대수가 9-19% 증가를 나타냈다는 사실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가속적인 세계 석유수요의 증대와 90년 이후 非OPEC 석유공급감소에 대한 예측이 방향착오가 아닐진대 OPEC는 90년대 중반까지 하루 2천200만-2천300만배럴의 만족할만한 생산수준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의 인센티브 결여라는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생산량 유지를 위해 지속적 감축을 한 결과에 따라 생산능력이 그러한 생산가능 수준보다 적어지

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OPEC 국가들은 그때까지 잉여생산 능력을 사우디와 같은 中東지역의 대 산유국과 베네수엘라 등의 타 회원국에 넘기고, 생산능력을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현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태는 예상외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는 말

OPEC의 현실 통제능력은 가까운 장래까지는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계속할 것이다. 만약 OPEC의 이러한 통제능력이 소멸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가관리 기능마저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 전체 OPEC의 석유소득은 상당기간 실질적인 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붕괴가 非OPEC의 석유생산을 1-2년 내에 감소하도록 유발하고 석탄·가스에 의한 연료 대체추세가 역전되도록 유발한다면 OPEC가 수년동안 산유량을 늘려간다고 해도 다시 油價가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 배럴에 13달러의 값으로 2천 400만배럴을 팔아 보았자 27달러에 1천 600만배럴을 팔기만 못하다. OPEC의 석유소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유가·생산량간의 콤비네이션의 비결이 있을 것이며, 문제는 OPEC가 그러한 콤비네이션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과 회원국들과 석유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 <PIW>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파동 피해간다